

## 곡성 정보화마을 농촌 체험 '인기'

딸기 따기 체험 1,700여 명 방문

사과나무 분양도 1,000그루 육박



활동정보화마을이 운영하는 주말농장 체험행사에 참가한 한 어머니와 어린이가 분양받은 사과나무에 자신의 이름표를 달고 있다.

특히 가을 수확 때 25kg 이상의 사과를 보장받고 우렁이 방사, 포도따기, 가래떡먹기 등 다양한 체험도 할 수 있다.

곡성군 관계자는 "정보화마을의 농촌 체험행사가 주민들에게는 안정적인 관로 확보로 소득 상향에 기여하고 도시 참가자들에게는 다양한 농촌 체험과 함께 맛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 제공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곡성=장필수기자 bungy@

해남 김 풍작

올 444억 매출

사상 최고 수익

해남 김 양식어민들이 김 풍작으로 사상 최고의 수익을 올렸다.

해남군은 29일 "최근 2008년산 김 생산을 마감한 결과 지난해에 비해 생산량이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어민들은 올해 지난해 대비 27%가 늘어난 1천413만여 속(속당 100장)의 김을 생산, 사상 최고액인 444억 원의 소득을 올렸다.

이는 김 포자를 부착한 뒤 태풍이 없었던 데다 수온도 적합해 품질과 작황이 모두 좋은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올해 김 양식 어민들의 평균 소득도 지난해 2천500만원에서 3천600만원으로 높아졌다.

/해남=박진표기자 lucky@



### 전남농협 농기계 무상 순회 수리

담양 대전면서 경운기 등 100여 대 고쳐



농협중앙회 전남지역본부(본부장 이덕수)가 본격적인 영농기 를 앞두고 지난 20일 담양군 대전 면에서 농기계 무상 순회수리 봉사활동을 벌였다. <사진>

이날 봉사활동에는 지역농협 농기계서비스센터 기술요원 15 명을 비롯해 농기계 생산업체 기술요원 7명과 농기계 이동 순회 차량 2대가 동원돼 이양기와 경 운기 등 100여대의 농기계를 수 리했다.

특히 이번 봉사활동은 농업인

들이 실비의 부품대금만 부담했 으며 각종 농기계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사용 지도도 실시됐다.

이제곤 대전농협 조합장은 "전 남부부가 농촌사랑 운동의 실천 사업 일환으로 추진하고 서비스 센터 기술요원들이 휴일을 반납하면서 자원봉사 형식으로 참여, 더욱 뜻 깊은 행사가 됐다"며 농업인을 대신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담양=장필수기자 bungy@

### 군의원에 영농자금 편파 지원

영암읍 전체 지원액 30% 달해 ... 농민들 분통

영암군의회 한 의원이 자치단체로부터 수천만원대의 영농자금을 지원 받아 도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영암군은 지난해 FTA 농촌 경쟁력 제고 사업으로 4억7천만원의 예산을 책정, 모두 171 농가에 농기계 구입 비용으로 지원했다.

영암읍의 경우 17 농가를 대상으로 가구당 평균 300만원 풀인 5천200만 원의 사업비가 책정됐다.

그러나 영암읍은 P모 군의원(영암읍·진진면·금정면)의 부인 명의로 된 한우축사에 스키드로더(퇴비 등 운반차량) 구입 자금 1천

된 한우축사에 퇴비사 건축 지원금으로 1천 500만원, 동력제초기 구입비 150만원 등 1천650만원을 지원했다. 이는 지난해 영암지역 농가 중 최고 지원액이며, 특히 영암읍 전체에 지원된 예산 중 30%에 육박하는 액수다. 이처럼 특정인에게 예산이 집중되면서 일부 농민들은 20만원 안팎을 지원받는데 그쳤다.

영암군은 또 지난해 P의원의 부인 명의로 된 한우축사에 스키드로더(퇴비 등 운반차량) 구입 자금 1천

500만원도 추가 지원했다.

농민 A씨는 "일반 농민들은 얼마 안되는 군 예산 지원도 겨우 받고 있는데 군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에서 아내 명의로 수천만원의 예산을 지원받는 게 말이나 되느냐"면서 "결국 군민에게 돌아가야 할 지원금을 군 의원이 독식한 셈"이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와관련 영암군 관계자는 "영암읍에서 선정한 대상자에게 관련 예산을 지급한 것"이라면서 "특정인에게 다소 많은 금액이 지원된 것은 사실이나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들 마을에는 생활환경 개선과 주민 소득 증대와 연계된 산촌체험 등 의 사업을 위해 규모에 따라 10억원에서 16억원까지 차등 지원, 1년간의 사전 설계 후 2년동안 생태마을 조성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전남도는 지난 1996년 곡성군 죽곡면 원율리를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16 개 마을을 조성했고 올해도 9곳에 28 억원을 투입해 생태마을을 조성하고 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 '산촌생태마을' 6곳 선정

산림청, 조성 사업비 10억~16억원 지원

구례군 토지면 송정·내동마을 등 전남지역 산촌마을 6곳이 산림청 주관 2009년도 산촌생태마을 대상으로 선정돼 10억원에서 최고 16억원까지 사업비가 지원된다.

이번에 선정된 전남지역 산촌생태마을은 구례 토지면 송정·내동마을, 광양 옥룡면 담곡마을, 곡성 오산면 단사마을, 보성 노동면 대련마을, 장성 서삼면 대덕마을 등이다.

### 40m 높이 줄타기 묘기 '아찔'

'2008 함평 세계나비·곤충 엑스포' 회양근린공원 광장

에서 열리고 있는 줄타기 묘기가 관광객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다. 셋노란 의상에 네개가 달린 곤충의상을 입은 공연팀은 40m 높이에 설치된 120m의 와이어 위에서 자전거와 오토바이를 이용한 박진감 넘치는 공연을 매일 2~3회씩 60분간 펼치고 있다.

/함평=박진표기자 pyj4079@

### 수제차 품평대회

5월 4일 다산유물전시관

제 2회 수제차 품평대회가 5월 4일 강진군 도암면 다산유물전시관 광장에서 열린다.

수제차품평대회는 올해 마련 햇차 민을 대상으로 차의 외형, 향기, 맛, 우린일 등을 평가한다.

대상 1명에게는 100만원, 금상(2명) 50만원, 은상(3명) 30만원, 동상(3명) 20만원의 상금과 상패가 수여된다.

참가 희망자는 내달 2일까지 녹차 50g~70g를 포장해 제출하면 되고, 참가비는 1만원이다. 문의 (061-437-7771)

### 영랑문화제 폐막

관광객 등 3만여 명 참여

영랑 김윤식(永郎 金允植) 선생의 민족사과 문학적 업적을 기리기 위한 제 3회 영랑문화제가 성황리에 폐막됐다.

지난 25일부터 3일간 강진군 강진읍 영랑생가 일원에서 열린 제 3회 영랑문화제에는 전국 각지에서 문인과 관객, 주민 등 3만명이 찾아 영랑선생의 문학정신을 되새겼다.

영랑생가는 지난해 10월 국가지정 문화재로 승격돼 영랑문화제의 위상도 한단계 더 높아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강진=박진표 기자 lucky@

**국제외식산업(주)**

새롭게 단장하였습니다!

"스카이워터" OPEN

제작 날짜 2008. 4. 26. 10:00 ~ 11:00

062-262-2278

**동화 골드레이크 회원권 분양·상담**

**동화 골드레이크 ECC**

동화 골드레이크  
제작·판매·VIP

**동화 골드레이크 호텔**

동화 골드레이크  
제작·판매

**동화 골드레이크 빌리지**

동화 골드레이크 빌리지  
• 51평형 - 2간bed  
• 61평형 - 3bed

전주 서구 농업로 390-102 (동화동 1-10) | 대전 유성구 대전로 100 (동화동 1-10) | 경기 고양시 일산동 100 (동화동 1-10)